

ASEAN+3 정상회의 - 인도네시아 교포 대표 간담회

공존을 위한 사회적 타협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고 공정한 경쟁과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 잘 이해합니다. 도와줄 방법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모든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이나 80년대에는 지배그룹이나 주류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배제했습니다. 독재와 반독재간에 공존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공존할 수 있는 토대 위에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도 어렵습니다. 공존하는 지혜를 만드는 방향으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응비와 도약을 위한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승복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 역사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호남 지역대결은 규칙이 없습니다. 대화와 토론을 하고 마지막에 표결하는 것입니다. 표결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승복해야 되지만, 안되고 있습니다.

노사대화도 참 안됩니다. 한때 노동자 권익신장을 위해 노동운동을 했는데 지금 보면 좀 심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되면

기업이 잘되는 것을 정책의 제일 목표로 삼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노동자와 가까웠고 잘 알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제가 당선될 때 언론에서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방법이 규칙을 정확히 지키면서 한 반대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지금 지독한 여소야대 국면이어서 모든 문제가 쉽게 극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못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싸울 땐 싸우고 대화할 땐 대화해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데 경기적 요인도 있고 구조적 요인도 있습니다. 투자, 사람과 노동에 대한 요소투입을 통한 성장 지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본의 투자는 전망이 낮아서 그렇고 사람은 고령화나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술혁신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을 전면적으로, 그러나 시끄럽지 않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 매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우수한 인력을 얘기합니다. 기술개발과 혁신이 성공하려면 공정한 게임이 이뤄져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할 때마다 대통령이 표적수사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이 이 기업을 손볼까 조사할까 하는 얘기를 주거나 받거나 한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미움 받아 세무조사 받는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경제인 몇 사람이 모여 박정희 시절 얘기를 했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불려가서 혼났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것이 맞습니다. 무능한 리더십이라고 해 걱정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가위 들고 머리 깎으면 폭동입니다. 금지곡 만들고 이마가

누구 닭았다고 TV 못나오게 하는 것은 이제 안 됩니다. 어렵지만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공유하되 합의한 원칙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선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합법적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힘이 없을 리 없습니다.

호불호를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면 처음엔 듣겠지만 나중엔 되돌아오고, 대통령이 큰 칼 쓰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칼을 써 일을 저지르며 이는 임기 말에 가서 되돌아옵니다. 대통령이 합법적 권력 외에는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주변 사람들도 몸조심을 합니다.